

한일비즈니스서밋라운드테이블(BSR) (09.10.10)

한일경제계의 리더는 서울에서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한일 간의 산업기술 협력, 환경 에너지 협력, 한일 FTA 추진, 한일 협력의 유망 분야(관광)에 대해 논의했다.

□ 한일 BSR 개최

- 한일경제계의 리더는 서울에서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09.10.10)
- BSR은 야국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목적으로 금년 2월 한일 정상 회담에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1차 회의를 4월에 개최, 이번 회의에 일본에서는 미타라이 후지오 경단련 회장을 비롯한 12명, 한국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17명이 참가

□ 협의 내용

- 일본측은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의 현황에 대해 설명
- 이 설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술협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동시에 설문조사를 통해 복수의 일본기업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향후 협력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관리 강화와 모회사에서 하청회사로의 기술지원 추진 등의 과제에 한국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
- 양국 경제계가 한일 FTA의 조기체결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
- * 지난 번 회의에서 거론된 한일 FTA에 대한 한국 경제계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단련은 6월부터 9월에 걸쳐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의 현황을 조사

-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공평한 국가별 목표로 이루어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국제체제 구축 추진 등에 대해 양국 경제계가 협력하여 양국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
- 한일의 산업협력은 제조업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큰 가능성을 두고 관광인재 육성과 양국의 지역 활성화 부문에서 협력 합의

□ 성과

- 양국 경제계가 한일 FTA의 조기체결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 함으로써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 속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공유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쌍방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황의 인식을 공유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큼
 - 장래의 구체적 성과로 연결할 방향성을 검토하는 중간적인 것으로 자리매김

<참고자료>

日本經濟團體聯合會(<http://www.keidanren.or.jp/indexj.html>)